

TAEYANG METAL INDUSTRIAL 2015

태양가족



www.taeyangmetal.com



TAEYANG METAL INDUSTRIAL CO., LTD.

Technical Development Quality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신년사
창조경영! 성장동력을 찾자!
새해를 맞이하여 태양금속 임직원 및 가족 모두
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태양금속의 성장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합니다.



해외법인인터뷰
인도법인 채수홍 법인장
2013년 9월 인도법인 부임 시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현지 직원들과는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해 나갈까 하는 고민 속에서 근무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업체탐방
태원금속(주) 김원기 대표
김원기 대표(65세)는 1967년에 태양금속에 입사
해 만 25년 동안 근무했다. 그리고 당시있었던 소
사장제도를 통해 1992년에 지금의 태원금속을 설
립했다. 지금도 태양금속 협력업체로 인연을 이
어나니 영원한 '태양 맨'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가족주의”

태양금속은 변치 않는 믿음과 변치 않을 사랑으로
한결같이 걸어온 가족애가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 그리고 직원 가족 모두가 한 가족”
이라는 생각으로 반세기를 걸어온 기업정신이 있습니다.

환한 미래를 여러갈 신뢰와 창조의 정신으로
百年大計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C O N T E N T S

Company Magazine of
Taeyang Metal Industrial Co.,Ltd. vol.1



태양금속공업(주)'태양가족'사보

발행일 2015년 2월 26일

발행인 한우삼

발행처 태양금속공업(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031) 490 5586

편집위원 박원근, 이일두, 강문호, 이정구,

허제, 이준영, 변관홍, 이승연, 강승구

www.taeyangmetal.com

디자인 큰하늘 031) 402 0876

gsky21@hanmail.net

04

창업주의 가르침
굳세어라 태양금속!

06

회장님 사외동정
제115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개최 외

08

신년사
창조경영! 성장동력을 찾자!

11

태양OB동정
태양OB가족 송년의 밤 개최

12

태양뉴스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외

14

해외법인, 계열사 소식
해외법인 품질 일관성 확보 점검 실시 외

16

신임 경력사원 인터뷰
신임 경력사원 6인 인터뷰

18

해외법인장 인터뷰
인도법인 채수홍 법인장

20

노동조합위원장 인터뷰
송병천 노동조합위원장

22

기획특집1
품질은 기초에서 출발한다!

24

기획특집2
비전해식 아연 - 알루미늄 복합 피막

26

협력업체 탐방
태원금속(주) 김원기 대표 인터뷰

28

신입사원소개
우리회사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30

사외동정
입사 및 인사발령

Taeyang Metal Industrial

창업주의 가르침



빛나는 태양금속은 대한민국의 자랑
전진! 전진! 태양금속!
태양금속은 어떠한 난관도 돌파한다.

굳세어라 태양금속!
길이 빛나리

우리의 숭고한 일터를 창업한 故한은영 명예회장님께서
태양금속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태양금속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970년 6월 14일 종업원야유회에서』



2014년 11월 27일(목)

안산상공회의소, 제115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 개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우삼, 이하 안산상의)는 11월 27일(목)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컨퍼런스홀에서 「2015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주제로 「제115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강연회에서는 안산관내 유관기관장 및 기업인들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 하태형 원장의 강의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를 주관한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등 기업하기에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한해였다.”라고 금년 한해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대내외 급변하는 경제 불안요인으로 경영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창을 베고 자면서 아침을 기다린다는 ‘침과대단(枕戈待旦)’이라는 말처럼 항상 준비된 자세로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는 말로 적극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자세를 요구하였다.



2014년 11월 23일(일), 30일(일)

제2회 안산상공회의소 회장기 직장 축구대회 개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우삼, 이하 안산상의)는 지난 11월 23일(일)과 30일(일), 2주간에 걸쳐 '제 2회 안산상공회의소 회장기 직장 축구대회'를 와~스타디움을 비롯한 5개 구장에서 경기를 나눠 개최했다.

29개사의 직장 축구동호회에서 6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 이번대회는, 당초 지난 4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연기돼 지난 11월 23일과 30일에 개최하게 되었다.

23일에는 와~스타디움에서 개막식과 개막전을 실시하고, 시낭·원시·성호·와~보조구장에서 경기가 분산되어 8강팀까지 결정되었고, 30일에는 와~스타디움과, 와~보조구장에서 결승전을 비롯한 8위까지 순위를 가리는 경기가 개최되었다.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23일 환영인사에서 “개개인의 기

량과 체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11명의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도와주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축구대회가 전하는 화합, 단결의 교훈을 통하여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보다 활기찬 생활과 안산지역 경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임해 승패에 연연하기 보다는 안전하고 즐기는 축제의 축구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제의 축구대회의 뜻을 참가한 선수들에게 전하고, 안전한 경기를 요청하였다.



2015년 1월 7일(수)

안산상공회의소 2015년 신년인사회 개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우삼, 이하 안산상의)가 지난 1월 7일 대회의실에서 「201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김영환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및 안산시의회 의원, 유관기관장, 안산상의 의원,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지역 단체 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2015년도를 완성하기 위한 시작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2014년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해, 국내 통신부품 시장의 경기침체 등 주력산업의 불황으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였지만, 새해에는 구조적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우리경제에도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한다.”고 희망찬 한해에 대한 소망을 말하였다. 또한,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잇따른 FTA체결로 우리 기업이 한층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시장 개척과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된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확신을 가슴에 품는 2015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참석한 모든 사람이 ‘경제발전’에 의견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2015년 1월 28일(수)

안산상공회의소, 제3회 신년음악회 성료

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우삼, 이하 안산상의)가 지난 1월 28일(수)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지역 상공인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 1,300여명을 초청하여 『제3회 안산상공회의소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안산지역 유관기관과 상공인들이 화합하여 경제 성장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장학증서 수여식)·1부·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안산상의는 매년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회원사 근로자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고등학생 20명에게 각각 100만원, 대학생 10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후, 안산상의 한우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학증서를 수상한 학생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온 만큼, 계속해서 학업에 열중하길 바라며, 훗날 안산의 미래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도 주역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바램을 전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무역1조달러, 최대수출, 최대흑자)을 달성하였다.”라고 전하며, “오늘의 신년음악회는 산업현장에서 각자의 맡은바 책임을 다하신 회원사 대표님과 임직원 및 가족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인 동시에 올 한해에도 회사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사 임직원가족 주말문화탐방」, 「직장축구대회」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출연자들의 흥겨운 무대에 객석의 관객들이 일어나 즐기고, 공연이 끝날 때 마다 ‘앵콜’을 요청하는 모습에서 안산상의의 신년음악회는 회원사가 다 같이 즐기는 지역축제임을 느낄 수 있었다.



2015년도 경영방침

창조 경영

친애하는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양'의 해로, 을의 색이 푸른색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여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태양금속 임직원 및 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태양금속의 성장과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합니다.

2014년도 우리 회사는 사업계획목표 달성과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위해 경영방침을 'VIVA! 2014!'로 정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글로벌 선도업체로의 도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품 생산량 목표 92,315톤으로 1,396톤 초과한 약 93,711톤을 달성하였고, 매출액은 본사가 3,681억원, 해외법인 1,200억원, 프라이맥스 679억원, 썬테크 249억원, 전체 5,811억원을 목표로 하였는데, 최종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본사가 약 3,596억원, 해외법인 1,193억원, 프라이맥스 670억원, 썬테크 187억원, TMC그룹 전체 매출액이 약 5,647억원으로 목표대비 164억원정도의 매출목표 미달이라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아쉽고 만족스러운 매출액은 아니지만 2014년도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수출둔화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로존은 긴축재정 및 디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등 극복해야 할 경제현안들이 아직 남아 있어 이를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경기둔화에 대해 부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하면서 성장을 하락은 불가피하나 경기방어 정책 병행으로 연착륙은 예상되며, 일본은 아베노믹스 효과가 약화되면서 엔화 약세 효과 축소, 소비세 인상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됩니다.

2014년도 한국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였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수출이 둔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 한국경제 전망은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3.6 ~ 3.9%로, 세계경기 회복 지연과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전이 예상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가격경쟁력에 쫓기는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추격해 오고 있으며, 일본은 엔저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산업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소 안심이 되는 것은 미국 주도의 점진적인 글로벌 경기회복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회사는 창립60주년을 맞이하여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 유관기관장, 협력업체 대표 및 태양 OB회원이 참석하여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기념식 및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창립 60주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수많은 위기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영광의 순간들도 경험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업체로서의 우리 회사의 위상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념사를 통해 글로벌체제의 강화와 신규 투자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과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회사의 성장, 발전을 위해 전 임직원이 심기일전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외 자동차완성업체가 품질문제로 인해 대량 리콜사태를 겪으면서 비용부담 및 기업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도 품질발생 보고서를 보면, 항상 발생하는 파렴치불량인 태양금속의 품질 경쟁력 확보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무나사 불량, 이중품 혼입불량, 도금불량,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찍힘불량, 라벨부착 오류 등 여러분이 땀흘려 일한 성과를 상쇄시키면서 이로 인한 크레임 비용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회사가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불량 지수 ‘제로’의 혁신이 되어야만, 우리 회사 추진과제인 품질 그랜드 5스타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 매출액 1조원 달성을 처음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2010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2011년 시무식 신년사에서 회장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하자는 그 목표해가 금년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매출목표 1조원 달성을 위한 최종 단계로 금년도 사업계획목표 및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경영방침을 ‘창조경영’으로 정하였습니다.

‘창조경영’이란 우리 회사 고객 또는 경쟁업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할 정도의 놀라운 수준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전 활동영역인 ‘연구개발, 설계, 생산, 마케팅, 인재육성, 지원업무 등에 걸쳐서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활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 이상의 감동과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이며, 적극적인 신제품 수주 및 개발역량 극대화로 신규매출을 증대시키고, 기술 경쟁력 확보와 독자적인 설계능력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금속공업이라는 브랜드가치와 회사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동시에 회사에 수익을 극대화가 이루어져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매출액 1조원은 빠른 시일내 달성될 것입니다.

태양가족 여러분!

2015년도 TMC그룹 사업계획 매출액 목표는 약 6,63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금속 본사 매출액이 약 4,467억원, 해외법인 매출액 예상액이 약 1,248억원, 프라이맥스 매출예상액이 약 724억원, 섀넌크 매출예상액이 약 200억원으로 합계 6,639억원을 계획한 것입니다.

2014년도 매출액 대비 약 17.5%정도 향상된 목표금액이지만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의 역량을 믿기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태양금속의 글로벌화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유럽 및 중남미지역에 대한 해외 영업력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수주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며,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간 전략적 사업 제휴 추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 한계를 극복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태양금속의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공장 건설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하여 최고의 시설과 환경속에서 임직원 여러분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새로이 전략기획본부장 정종윤상무님, 품질본부장 김연수상무님을 비롯하여 리스크관리, 기술개발, 생산기술분야에 간부사원을 채용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품질·기술혁신과 설비 효율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매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태양금속 임직원 여러분!

매년 연초가 되면 각 본부 및 팀에서는 전년에 부족했던 업무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관리' 보고로 업무 프로세스가 마무리 되는게 현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핵심요인인 품질, 제품 가격, 기술개발, 영업, 납기 등의 업무에 '사전관리'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품질문제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체 설계능력을 갖추어 미리 업체에게 제품도면을 제출할 수 있는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가격 결정이나 납 기준수, 영업수주, 구매 등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전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RISK를 관리하고, 우리 회사가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작년 매출액은 계획대비 약 2.8% 미달되어 태양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빛을 발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수익률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경영방침인 '창조경영'을 추진하면서 경영의 '집중과 선택'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사업과 아이템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수익성 중심의 영업활동을 추구하여 적자품목 및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가 경쟁력 강화와 현재 추진중인 TPM 활동을 연계한 혁신적인 공정개선 및 원가절감을 추진하여 내실경영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고, 각 본부간, 팀간, 팀원간 협력적인 협조체계를 꾸준히 유지하여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협력업체와는 품질,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한 WIN-WIN체제를 확립하여 상생관계 유지와 기업문화 고취 및 인재육성을 통해 태양 가족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100년, 200년 이상의 글로벌 명문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은 온순한 청양의 해입니다. 양은 이해심이 뛰어나고 화합을 잘하고 조화롭게 무리지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 청양의 기운을 받아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5일
사장 한성훈

2014년 12월 27일(토)
태양OB가족 송년의 밤 개최



12월 27일(토), 태양 OB가족 송년의 밤이 열렸다. 회사를 떠났음에도 태양OB의 끈끈한 관계의 바탕은, 가족에 정신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한우삼 회장의 경영방침이 밑바탕 되었다. 이날 송년의 밤에선 김운학 OB회장 외 24명이 참석하여 다 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11월 21일(금)~29일(토)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우리회사가 1~2년차 사원 39명을 대상으로 11월 21~22일, 28~29일, 2차례에 걸쳐 1박 2일 일정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다. 청호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이번교육은 '변화를 이끄는 힘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긍정에너지를 통해서 위기 극복의 힘을 키우고,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팀워크 및 성과창출을 위한 교량설계 등에 관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교육을 통하여 우리회사의 비전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제까지 학습된 지식들을 쇄신하고 변화해 나가야 하는 역할 수행의 계기가 되었다.

2014년 11월 28일(금)

노사협력 품질혁신 결의대회 개최



11월 28일(금), 품질본부 주관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 협력 품질혁신 결의대회를 개최 하였다. 품질은 나의 자존심이며 회사의 생명임을 인식하고 기초품질 확보를 통한 "고객 부적합 50% 감소목표"라는 슬로건과 함께 5개 항목의 품질혁신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해외법인으로 수평전개하여 글로벌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법인장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2014년 12월 3일(수)

동절기 화재예방 소방교육 실시



12월 3일(수), 사내광장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예방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소방교육훈련은 소방시설 사용방법,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소방시설 관리요령,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되었고, 실제로 소화기를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무관심과 방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12월 8일(월)

'2014 대한민국 혁신선도 중견기업상' '장수기업부문상' 수상



12월 8일(월), 우리회사 한우삼 회장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선도 중견기업 시상식에서 '2014 대한민국 혁신선도 중견기업상' '장수기업부문상'을 수상했다.

'장수기업부문상'을 수상한 한우삼 회장은 우리회사를 창립60주년을 맞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대표적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창립자의 상생경영철학을 계승하면서

서 단 한번의 구조조정도 없이 무분규 사업장의 전통을 세웠고, 글로벌 완성차업체로부터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우삼 회장은 수상 소감문에서 "대한민국 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 및 중소기업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3세대 경영체제를 이어가면서 글로벌경영체제 강화 및 경영혁신 활동을 계속 추진하여 100년, 200년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9일(화)~10일(수)

품질경영시스템 내부심사 실시



12월 9일~10일, 2일간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적합성 및 효과적 실행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 어프로치 방식의 품질 내부심사가 실시되었다. 금번 내부심사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비롯한 신진 공정부터 최종검사까지의 공정심사를 병행하였으며, 한층 강화된 부적합 시정 조치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5년 품질 내부심사는 4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TAEYANG NEWS

2014년 12월 23일(화)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대상기업 선정



12월 23일(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박희갑 팀장 등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서를 수여하기 위해 당사를 방문하였다. 우리회사는 지난 2014년

10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에 선정되었다.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제품개발-생산-해외판매”에 이르는 글로벌화(globalization) 전(全) 단계에 필요한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일괄지원함으로써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핵심 전략 사업이다. 이로써 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

2014년 12월 24일(수)

협력사 품질확보방안 설명회 개최



12월 24일(수), 우리회사 협력사 64개 업체의 품질 실무자를 대상으로 품질 확보방안 설명회가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품질본부 주관하에 진행되었으며, 현성운 전무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4년도 품질 실적, 15년도 품질 목표 및 품질 확보방안, 품질본부 당부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협력사 품질 실무자 및 대양금속 품질본부 임직원들은 현 품질수준을 인지하고 더욱 강화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글로벌시장에서의 품질 경쟁력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15년 1월 5일(월)

2015년도 시무식 대강당에서 열려



1월 5일(월), 2015년도 시무식 행사가 전사원이 모인 가운데 본관동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한성훈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4년도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양금속 전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올해 경영방침을 ‘창조경영’으로 정하고 매출 목표 1조원 달성을 위한 최종 단계로 금년도 사업 계획목표 및 성장동력을 찾자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2015년 을미년 새해에 청양

의 기운을 받아 임직원 및 가정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였다. 이번 2015년도 시무식은 태양가족 임직원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2015년 1월 17일(토)

사랑회, 푸른초장에서 새해 첫 봉사활동 실시



1월 17일(토), 우리회사 봉사활동 동호회 사랑회가 푸른초장(양로원)에서 새해 첫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사랑회는, 사랑회 회원 약 10여명이 참여하여 4시간가량 푸른초장의 환경정화와 생활관 청소 등 부족한 일손을 돕고, 쌀, 귀저기, 화장지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사랑회는 앞으로도 계속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지금보다 어려운 노인분들이 계시면 망설임없이 도와줄 것이라며 향후계획을 밝혔다.

2015년 1월 17일(토)

신년 시무식 산행 개최



1월 17일(토),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가지를 다지기 위한 신년 시무식 산행이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산행에는 한우삼 회장 外 태양금속공업(주), ㈜프라이맥스, ㈜센테크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하였고, 한우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5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개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했다.

해외법인 소식

2014년 6월~12월

해외법인 품질 일관성 확보 점검 실시

본사 품질본부 주관, 품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해외법인 품질 일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연대법인/장가항법인/인도법인을 대상으로 총 6회(2014년 6월~12월)에 걸쳐 품질 일관성 확보 점검을 실시하였다. 현대.기아 품질5스타 평가서를 활용하여 총 8개 항목 42개 요구사항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근본개선 활동과 유효성 검증을 병행하였고 주재원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고객 품질 요구사항, 공정 관리 우수사례, 본사 프로세스 운영방법 등의 품질교육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해외법인 고객부적합 건수 32% 감소, 품질5스타 등급평가 점수 4% 향상 등의 성과를 나타냈으며, 2015년 추진계획으로 전년도 미흡항목에 대한 중점 점검 및 레벨업 활동을 통해 본사 수준의 품질 일관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장가항법인



연대법인

2014년 12월 9일~2015년 1월 8일

각 법인 별 품질혁신결의대회 열어

12월 9일 연대법인을 시작으로 인도법인(16일), 장가항법인(17일), 북미법인(1월 8일) 순으로, 각 법인 별 품질혁신결의대회를 열었다. 법인장 및 전 임직원이 모인가운데 시행된 이번 품질혁신결의대회는 글로벌 품질경쟁력 및 기초품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전년대비 고객 부적합 50% 감소목표와 5개 항목의 실천과제를 채택하여 결의하였으며, 각 해외법인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2015년 품질경영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연대법인



장가항법인

2015년 1월 5일(월)



연대법인 시무식 행사 열어

1월 5일(월), 연대법인 전 임직원은 한자리에 모여 “창조경영”의 해를 맞이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공유하고, 연대법인과 직원 모두의 발전을 다짐하는 시무식 행사를 열었다.



인도법인



연대법인

계열사 소식

2015년 1월 15일(목)

프라이맥스 공장혁신 TFT 발촉식 및 결의대회 실시

1월 15일(목), 프라이맥스 대강당에서 2015년 생산성 향상 30%와 이익 추구를 위한 노사협력 ‘공장혁신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 모두는 공장혁신은 나와 회사의 생존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객감동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 되자 결의를 다졌다.



북미법인



인도법인



신임 경력사원 인터뷰 질의

1. 우리회사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2. 과거 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3. 우리회사에 바라는 게 있다면?
4. 앞으로의 포부?

전략기획본부 상무 정종운



1. 창립 60주년이 넘는 회사라 그런지 역시 뿌리 깊고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거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밝은 인사성에 저 역시 미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사와 함께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2. 경영혁신 업무와 신(新)사업기획 업무를 주로 하였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 합쳐 도전해 나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역경과 시련도 극복하고 도약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밑일이 되겠습니다.
3. 소통입니다. 작은 대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협력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활기찬 조직, 행복한 직장생활에 술선수범하겠습니다.
4. 경영진 및 임직원을 도와 우리 태양금속공업이 매출 1조원 아니 5조원 10조원의 대그룹으로 성장해 가는데 일조 하겠습니다.

품질본부 상무 김연수



1. 처음 우리회사에 방문했을 때, 정문앞에 걸려있는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현수막을 통하여 건물은 낡아 보였지만 긴 역사와 전통이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정문 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한 대응에 따뜻한 온정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입사하여 자동변속기 설계팀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한 시스템은 토코 컨버터(엔진의 토크를 증배시켜 바퀴에 전달하는 기능)와 오일펌프 설계업무였습니다. 두부품 모두 볼트가 사용되어 처음으로 볼트를 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태양금속과 인연을 맺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국내 신차 개발단계 품질개선을 위한 파이롯트 차량의 단계별 품질점검 및 개선업무와 해외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모든 품질문제 원인조사 및 개선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및 해외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태양금속이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기여하겠습니다.
3. 회사에서 중추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해야 할 중간층 사원이 적다는 것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전사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직원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중간 허리가 튼튼해졌으면 합니다.
4. 품질은 품질부서에서만 잘해서 향상되는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 자기 부문에서 책임감을 갖고 잘해줘야 개선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품질은 설계품질 - 생산품질 - 점검 및 검사품질 - 포장품질 - 물류품질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계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자신이 맡은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고객사 다변화를 통하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품질부문은 설계 초기부터 출하까지, 양산 이전의 모든 단계 및 공정들을 세심하게 점검 및 평가하여 양산 이후에는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금속의 품질 브랜드 가치를 향상해 고객한테는 감동을 주고, 우리도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회사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동화팀 부장 천금배



1. 60년 역사의 안정적이고, 은퇴 후에도 태양금속 OB에 동참하여 추억을 간직하고, 그런 가족같은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2. S&T 트랜스미션, 헤인 엔진사업부 기술 및 R&D 업무를 맡았으며, 미래 지향적인 선진사고와 최고의 선진 기술로, 대단위 음성신축 공장을 필두로, 태양금속의 새로운 제 2의 도약을 위한 창조경영을 위해서, 고부가 가치의 New-Development 선진기업이 되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3. 직원 서로가 노력하고 화합하여,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기존 국내업무 차원을 넘어선, 선진국 차원의 창조하고 만들어 내는, 마무리를 잘 하는, 함차게 전진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4. 태양금속의 고급 인재가 회사의 영원한 무형 자산임을 명심해서, Quality Best Safety First 기술업무로, 세계기업 - 태양금속 - 선진기업이 되도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선진전략 업무를 하겠습니다.



RISK관리팀 부장 **최진후**

1. 60년이나 된 장수기업으로 회사소개 동영상을 보면서, 창업 회장님의 경영마인드에 많이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기업이 되리라는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2. 철강회사의 신규사업 및 원가, 기획분야를 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이든 기존 사업이든 사업진행에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반대로 그 내면의 어려움을 사전에 개선하여 우리회사의 계획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의 덴소라는 회사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아들이 다녔으면 하는 회사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태양금속이 고객과 회사와 종업원들이 행복한 회사, 제 자식들도 다녔으면 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4. 1조 매출을 넘어 더 멀리, 더 높게 뻗어나가 우리 태양금속의 성장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설계개발팀 차장 **조정민**

1. 2014년 12월 15일, 처음 출근 하던 날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던 직원분들의 모습과 서로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며 지나치는 모습들에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회사이기에 직원들 나이가 다소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젊은 직원이 많아서 '역시 태양금속이구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나온 60년보다 앞으로의 60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회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지금까지 냉간단조 설계와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먼저 태양금속의 업무방식에 적응하면서 내가 해왔던 방식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팀원들과 함께 최대한 많이 소통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향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을 때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3. 직장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그건 분명 내가 속해있는 조직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태양금속이라는 조직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사랑 어린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이제는 나도 태양금속이라는 큰 배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탑승하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노를 저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인이라는 회사가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동화팀 과장 **원희연**

1. 1955년 신진공업사가 최초의 시발자동차를 만든 시점보다 1년이나 먼저 태양금속이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년이라는 대단한 기업의 전통과 문화만큼 태양금속의 첫인상은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또한 견고하고 굳건했습니다.
2. 전공을 살려 장비 설계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자동차 부품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엔진, 브레이크, 미션 등의 부품 선행개발, 양산/공정 및 시스템 생기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의 큰 흐름으로 요약하면 프레스, 용접, 열처리, 도장, 가공, 조립의 최적화 구축을 통해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였고, 자동차 부품 제조공정의 자동화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며 실패의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거울삼아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기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직장 선후배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생명력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 있는 조직이야말로 직원 스스로 책임의식과 주인정신을 가지고 일하게 됨으로 활력이 넘치고 많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태양금속이 그 어느 기업보다 생명력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4. "무엇이든 공부가 된다."라는 말은 풀어내는 순간, 어떤 상황도 확 밝아지고 어두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일의 성공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경험도 받아들이는 배우는 자세에 따라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은 마이너스밖에 없지만 이미 성공을 이룬 사람은 어떤 사건도 플러스만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태양금속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임하겠습니다.

Taeyang Metal Industrial
해외법인 인터뷰

채수홍

인도법인
법인장



“
 지속적인 교육과 회사 비전 등을
 홍보하여 ‘태양가족’이라는
 기업 문화가 인도법인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Q 법인장으로 부임할 때와 현재 인도법인의 발전상은?

A 2013년 9월 인도법인 부임 시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현지 직원들과는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해 나갈까 하는 고민 속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공장은 안정화 시점이었으며, 조항 공장(TSP) 양산한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다수의 품목을 본사 CKD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본사 CKD품에 대한 환율 악화 리스크까지 겹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산공정 불안정, 로컬공급업체들의 품질 및 공급 이슈가 당면 과제였습니다. 주재원과 현지인들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노력한 결과 본사CKD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환율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었고, 로컬공급업체 품질 개선활동을 통하여 직행물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현재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직원들의 품질에 대한 의식도 많이 변화되어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량은 즉시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나간 결과 고객의 PPM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조항(TSP)사업 초기에는 RBI/HA차종 년 10만대로 시작하여, 2015년기준 8차종(인도 및 해외수출 차종 포함) 년 1백만대 생산 판매목표로 추진중입니다.

Q 내가 생각하는 인도법인의 경쟁력은?

A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숙련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조항(TSP) 제품을 글로벌시장에 공급한다면 최고의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Q 인도법인장으로서 느끼는 보람은?

A 글로벌 시장(인도와 터키 및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에 우리

태양메탈인디아에서 생산한 조항(TSP) 제품이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음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본사에서 연수한 현지직원들이 현재 중요부서 매니저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사 생활은 물론 화목한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인도법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A 관리직, 생산직 및 일용직 포함 500명 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인사 및 노무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 중간 관리자들의 중재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향후 산업 발전 시 동반되는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증가(급여 및 복리후생 등)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회사 비전 등을 홍보하여 ‘태양가족’이라는 기업 문화가 인도법인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금년도 계획 및 앞으로의 포부?

A 루피화 약세란 불리한 환율 여건을 부품 국산화의 조속한 마무리로 이익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중이며, 향후 본사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투자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포부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A 사보를 통해 인도법인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도 현지 직원들이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모두 태양가족으로 생각하고, 본사에 계시는 임직원분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Taeyang Metal Industrial
노동조합위원장 인터뷰

송병천

노동조합
위원장

“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앞을 향해 정진하는
 태양인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



Q 우리회사 노사는 무분규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저는 태양가족 노·사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故한은영 명예회장님 시절부터 한우삼 현 회장님 시점까지 우리회사는 유류파동, IMF때도 인원감축 없이 회장님의 가족경영 철학이 노동조합은 물론 태양금속 전 임직원들에게 큰 감동과 신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 햇수로 6년째 노동조합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은?

A 6년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체결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체결하면서 간혹 소통에 문제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서로 벽보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땐 왜 그랬을까?” 하며 웃음이 납니다.

Q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는 아쉬웠던 점은?

A 2011년경 우리회사 기숙사 옆에 주유소 설치 반대집회를 했으나 노동조합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자동차 엔진소리, 세차소리, 기름냄새 등의 어려운 요건이 많았고, 특히 기숙사 옆 주유소 설치하는 항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유소 설치를 막지 못한 게 아쉽고, 우리 태양가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6년 동안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아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특히 임

기 동안 무사고 목표를 가지고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무사고 성공을 하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Q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주·야간 업무에 바쁘다 보니 개인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항상 건강해야 회사, 가족이 편안하고 화목해지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능력자입니다. 능력을 발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앞을 향해 정진하는 태양인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품질은 기초에서 출발한다!

품질의 정의는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용어로 정의된다. 예컨대, 품질학자의 정의를 보면 “주관: 사용의 적합성, 크로스비: 요구한 조건과의 일치성, 파이겐바움: 사용되는 제품이 고객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가를 나타내는 생산된 제품의 복합적인 특성”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변치 않은 것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품질경영의 요체가 된다는 점이다. 최근 완성차 고객은 품질의 정의에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품질 기초질서 8항목”을 선정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품질 기초질서 확립과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품질 불감증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으며, 기초품질 확보를 위한 점검내용과 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품질기초질서 8 항목

- ① 4M 미신고
- ② SQ 미인증사 거래
- ③ 비 규격 재질사용
- ④ 품질관련 허위서류 기재
- ⑤ 검사기준 미 준수
- ⑥ 불량품 납품
- ⑦ 2차 협력사 동일 업종 외주하청화 위반
- ⑧ 관리부실로 인한 품질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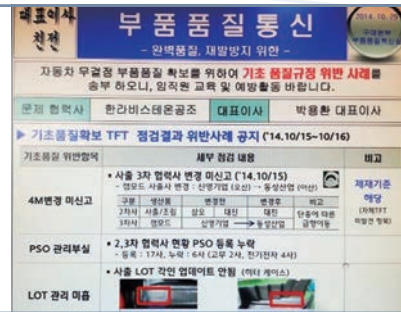
① 4M 미신고 (사례)

■ 점검내용

: 초도 부품 승인서류(SIR) 등록 기준 변경내용 점검
(사람, 설비, 금형, 원재료 재질, 제조공법 및 조건 준수)
- 공정관리계획서, 검사협정서, 검사기준서

■ 제재규정

: 품질5스타 -5점/건 감점, 1차 전 협력사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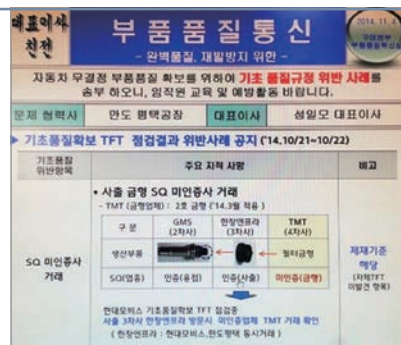
② SQ 미 인증사 거래 (사례)

■ 점검내용

: PSO 전산등록 SQ 인증사 기준 실제 거래중인 2~3차 협력사 현황, PSO 전산등록 현황
- SQ 인증서(협력사명, 업종, 인증번호, 유효기간)
- 외주품 재고 현황, 외주품 귀책 품질문제 현황

■ 제재규정

: 품질5스타 -5점/사 감점, 1차 전 협력사 공지



③ 비 규격 재질사용 (사례)

■ 점검내용

: 도면 명기 재질 기준 실 사용 재질 점검
(스크랩 사용량, 이종재질, 이종두께 등)
- 검사협정서, 검사기준서, 원소재 수입검사 기준
- 원재료 LOT별 밀시트, 생산량 대비 원재료 사용량

■ 제재규정

: 양산차종 반납 or 신차 3차종 입찰제한, 1차 전 협력사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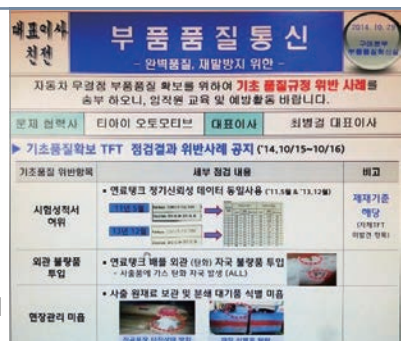
④ 품질관련 허위서류 기재 (사례)

■ 점검내용

: 검사기준서, 검사성적서, 신뢰성 시험성적서 공정관리 기준서 등 품질서류 기준으로 협력사 보유품질서류 점검
- 신뢰성시험 CAPA 분석 또는 여유율 부족 시험기
- 시험기간 장기소요 항목, 정기시험 계획 대비 실적

■ 제재규정

: 양산차종 반납 or 신차 3차종 입찰제한, 1차 전 협력사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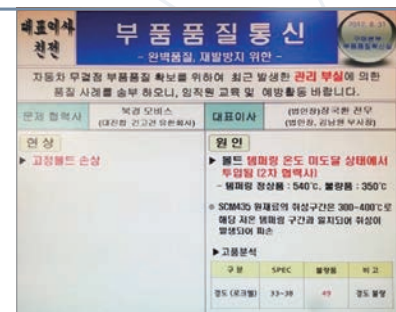
⑤ 검사기준 미 준수 (사례)

- 점검내용 : 검사기준서 명기된 검사주기, 방법, 공차적용 등 기준 협력사 보유 검사성적서 점검
 - 도면, 설계/공정 FMEA
 - 검사협정서,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 수입검사 표준
 - 수입검사 성적서, 자주.순회 검사성적서
- 제재규정 : 양산차종 반납 or 신차 3차종 입찰제한, 1차 전 협력사 공지



⑥ 불량품 납품 (사례)

- 점검내용 : 불량부품 처리절차서 기준 이행현황
 - 부적합품 발생 현황, 부적합품 처리 절차
 - 리워크 및 재검사 현황, 리워크 작업자 자격인증서
 - 폐기 절차 및 관리대장, 초기 셋업품 관리 현황
 - 자동검사기(선별기) 검출조건 및 검증 이력
- 제재규정 : 양산차종 반납 or 신차 3차종 입찰제한, 1차 전 협력사 공지



⑦ 2차 협력사 동일 업종 외주하청화 위반 (기준)

- 점검내용 : 2 → 3, 3 → 4차 이하 하청 시 동일업종 외주 재 하청에 대한 위반사항 점검
 - 외주협력사 거래 LIST 및 PSO 대비 실 거래 대장 확인
 - 외주부품 보관장소, 입고대장, 입고차량 소속 등 확인
 - 협력사 외주부품 품질문제 발생현황 및 개선대책 등 확인
- 제재규정 : 양산차종 반납 or 신차 3차종 입찰제한, 1차 전 협력사 공지

- 대상 : SQ 세부업종 기준 (표면처리 업종 : 도장 / 도금 / 열처리제외) → PART BOM TREE 기준

- 위반대상 예시 (2 → 3, 3 → 4 차 이하 외주 시 동일업종일 경우)

구분	1 차	2 차	3 차	4 차	위반여부
2 → 3	사출	사출	사출	단조	위반
3 → 4	사출	단조	사출	사출	
상이 SQ 업종	단조	사출	용접	사출	미위반
상이세부업종	단조	용접 (레이저)	용접 (브레이징)		

⑧ 관리부실로 인한 품질문제 발생 (사례)

- 점검내용 : 공정조건 미 준수, 설비점검 미흡, 금형 / 툴관리 미흡, 작업자 오류, 재질불량 등 현장 점검
 - 작업 숙련도 미흡, 이중작업, 작업누락, 셋팅값 오류
 - 보관, 세척, 타수, 보수 관리 미흡
 - 재질보관 미흡, 오사양 투입
- 제재규정 : 양산차종 반납 or 신차 3차종 입찰제한, 1차 전 협력사 공지



당사는 기초품질 확보를 위한 자체 TFT를 조직(2014년 7월)하여 품질 기초질서 8항목에 대한 사전점검 및 문제점 예방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품질의식 향상 교육과 2, 3차 협력업체 수평 전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비전해식 아연_알루미늄 복합 피막

비전해식 아연 - 알루미늄 복합 피막이란?

● 목적

→ 최근 낮은 생산 비용과 고 내식성으로 비전해식 아연 - 알루미늄 복합 피막이 각광 받고 있다. 이에 해당 표면처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 비전해식 아연 - 알루미늄 복합 피막

→ FASTENER의 표면에 아연 분말을 도포하여 가열 환경에서 분말과 소재 간에 결합이 발생하여 무기성의 표면 코팅이 형성되는 도금.

● 이력

→ 기존 DACRO(6가크롬 성분 함유) 사용

→ EU중금속 규제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 NONE 크롬 도금인 아연 - 알루미늄 복합피막 적용.

→ 최근 낮은 가격과 고 내식성으로 많은 FASTENERS에 적용되고 있음.

● 특징

→ 수소취성의 위험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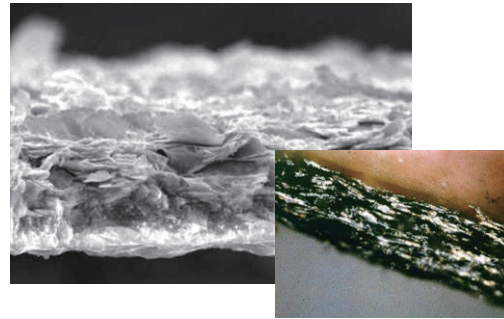
→ 자기 희생 보호 기능 (내전해성)

→ 비전해식 처리 방법

→ 재료의 구조 변화 위험 없음.

→ 아연 - 니켈 도금 대비 저렴

→ 고내식성 (1000hr 적정 無)



● 주요 약품 및 처리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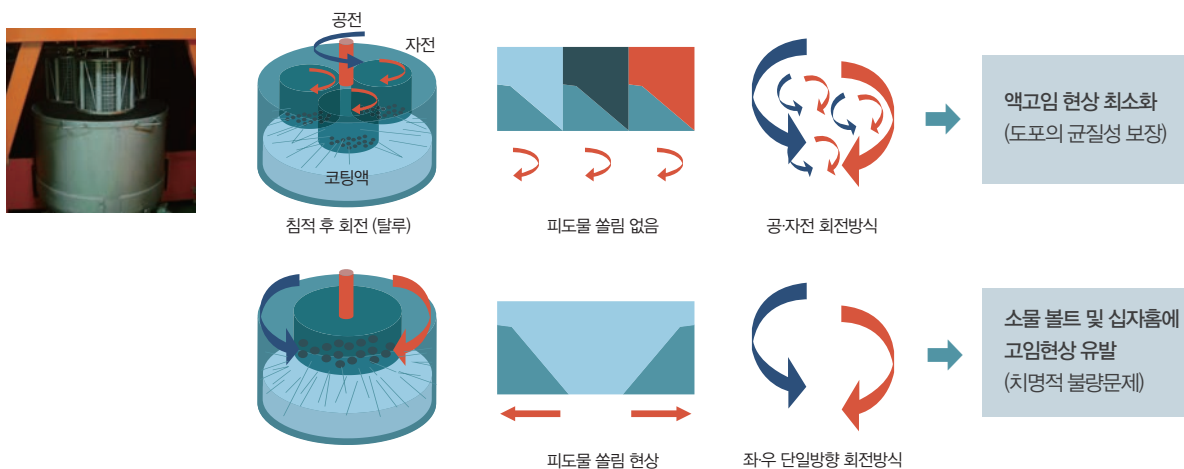
GEOMET

→ 일본 NOF METAL COATINGS사의 약품으로, 현재 현대/기아 자동차 및 일본 업체 측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며, 당사에서 가장 많이 적용 및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다. ※주요 처리 협력 업체 : 한일산업, 코텍 지오메트

DOERKEN

→ 독일 DOERKEN 사의 약품으로,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다. 최근 현대/기아 자동차에 양산 적용 되었으며, 우수한 외관 품질로 인하여 렌즈 볼트 및 외관 품질이 중요시되는 부품에 적합하다. ※ 주요 처리 협력 업체 : 갈루코리아

→ 갈루 코리아의 경우, 공-자전식 삼중 복합 바스켓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액고임 관련 외관품질이 타업체에 비하여 우수하다.



MAGNI

→ 미국 MAGNI 그룹의 약품으로, GM 및 CHRYSLER, FORD 등 미국 자동차 업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두 약품과는 다르게 지용성 표면처리로, 전처리 공정으로 인산염피막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처리협력업체: ADUP, NST 등

성분 분석

● DOERKEN (Delta protekt KL-105)

Base Coating 성분	Top Coating 성분
Zinc(아연)	Epoxy resin (에폭시 수지)
Aluminium(알루미늄)	Aluminium(알루미늄)
Silicon dioxide(이산화 규소)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Titanium dioxide(티타늄디옥사이드)	Misc., no to declare(기타)
Misc., no to declare(기타)	

● GEOMET(GEOMET + PLUS ML)

성분
Zinc(아연) Aluminium(알루미늄)
Silicon dioxide(이산화 규소)
Silicic acid, Sodium salt(규산, 염화 나트륨)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Misc., no to declare(기타)

물리적 특성 비교 - 내식성

● DOERKEN (Delta protekt KL-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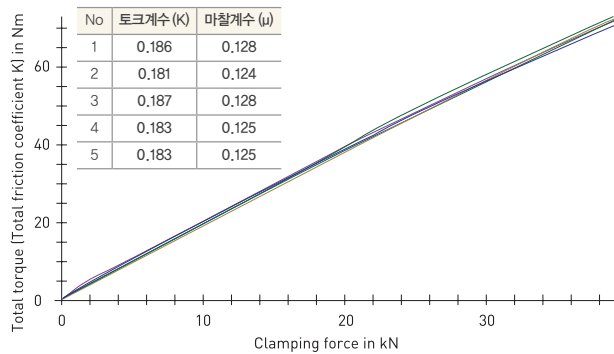


● GEOMET(GEOMET + PLUS 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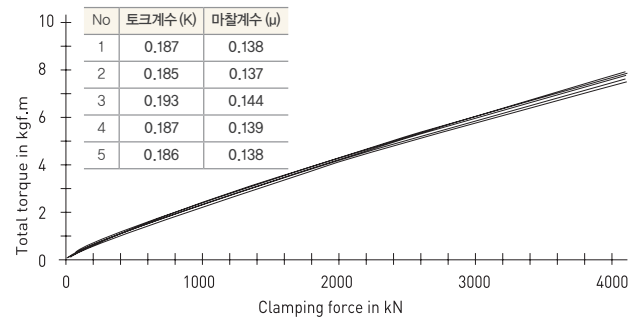


물리적 특성 비교 - 토크계수 및 마찰계수

● DOERKEN (Delta protekt KL-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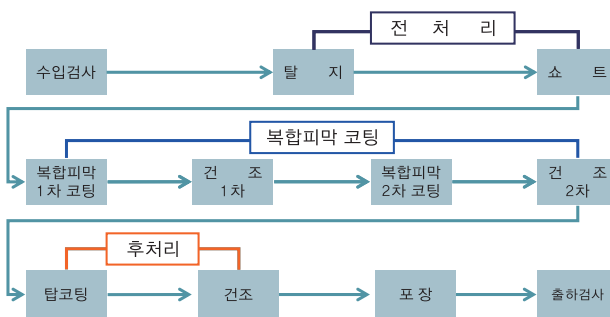
● GEOMET(GEOMET + PLUS 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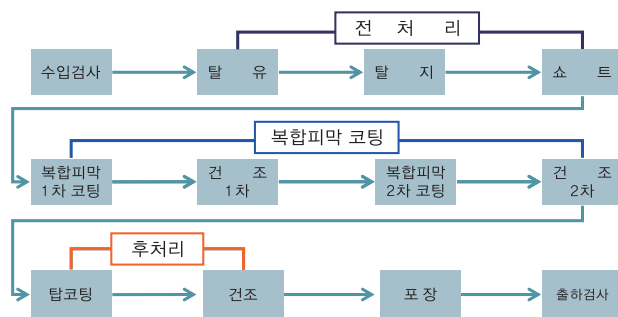
※ 시험 결과, 두 약품 모두 균일하고 안정 적인 토크계수 값을 가지며, 마찰계수 또한 안정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탑 코팅이 토크안정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제조 공정 비교

● 제조 공정 - DOERKEN



● 제조 공정 - GEOM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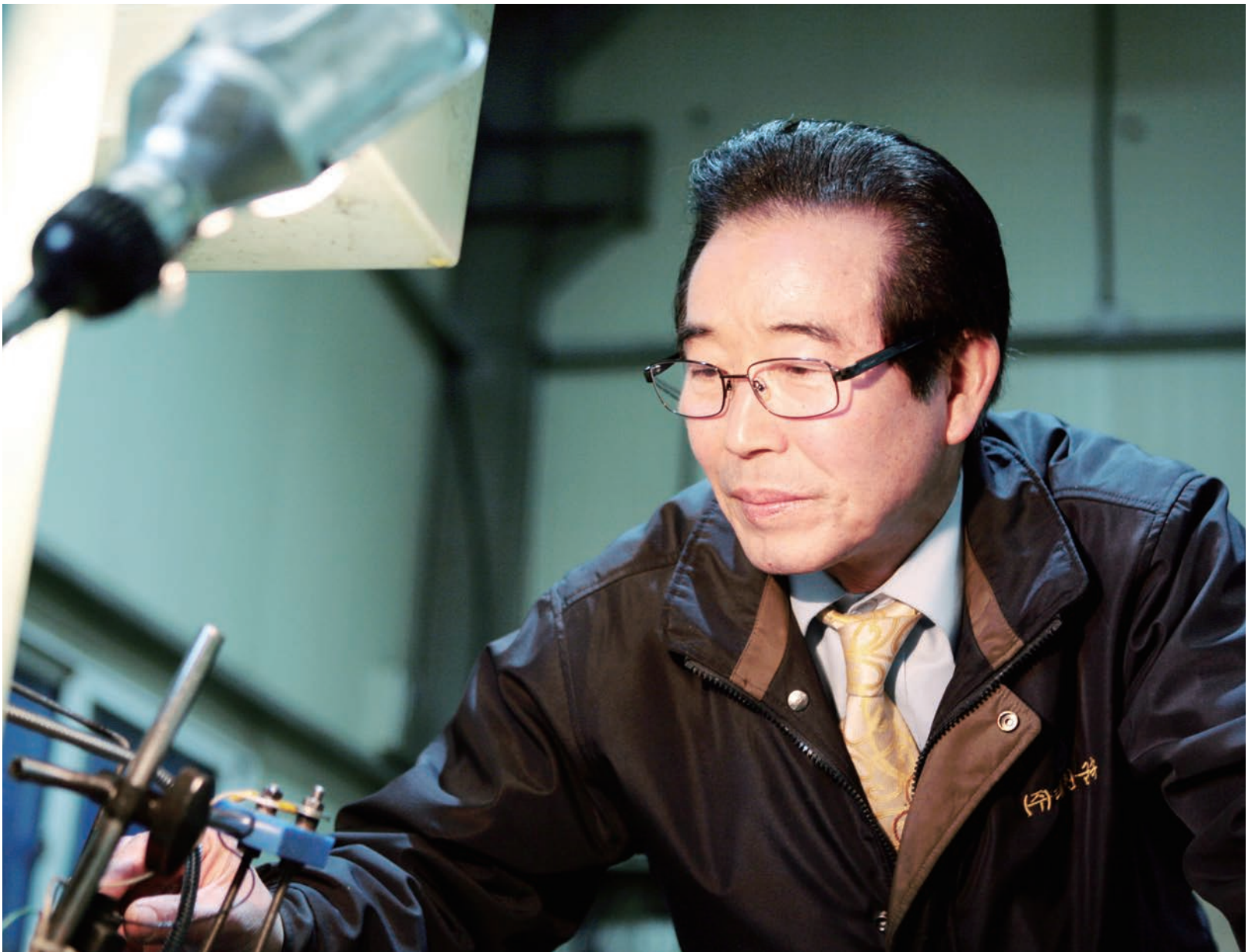


Taeyang Metal Industrial

협력업체탐방 | 글_ 최수진 사진_ 유광식

태원금속(주) 김원기 대표

태양맨 정신으로 승부한다





◎ 불량품 개선을 위한 기계화를 직접 이룬다

김원기 대표(65세)는 1967년에 태양금속에 입사해 만 25년 동안 근무했다. 그리고 당시있었던 소사장제도를 통해 1992년에 지금의 태원금속을 설립했다. 지금도 태양금속 협력업체로 인연을 이어가니 영원한 '태양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길, 한 인연을 이렇게 길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지금부터 그 속을 들여다본다.

“제가 제조1과 3반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 열처리 후 휘어진 제품을 발로 밟아서 바로 잡았어요. 불량 주문은 폭주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아 사람이 해서는 한계가 있었죠. 그 문제를 제가 고민 끝에 금형도 요청해 만들고 해서 결국 3개월 만에 롤링작업으로 기계화 했습니다.”

당시 불량 제로 운동은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사운을 걸고 매진하던 때였다. 수익률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거래처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김원기 대표의 노력이 빛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시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 판단하고 도전하게 된 거죠. 그 때도 의무와 책임을 다했으니 그걸로 만족했던 것 같고, 지금도 저희 회사의 기계 수리는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강소기업을 향한 도전

김원기 대표는 냉간단조업계와 맺은 인연의 결실을 강소기업으로 한 발 더 도약함으로써 맺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첫 발을 연구소 설립으로 내딛었다. 현재는 사내에 있고 인력이나 장비도 부족하지만 곧 제대로 된 연구실을 확보 할 계획이다.

“태원금속은 주문이 들어오면 설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용도에 따라 설계도 하고 제품생산도 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술연구소입니다. 제품설계와 개발, 그리고 품질을 관리하고 유지하게 해 주죠. 현재는 회사 안에 조그맣게 있지만 부지를 확보 했으니 곧 이전도 하고 인력과 장비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원기 대표의 품질에 대한 열정은 첫 직장인 태양금속 시절부터 이미 몸에 배어 터다. 연구개발에 투자해 직납을 더 늘려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당찬 각오 역시 그간의 경험이 아니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기업의 최종 목적은 사회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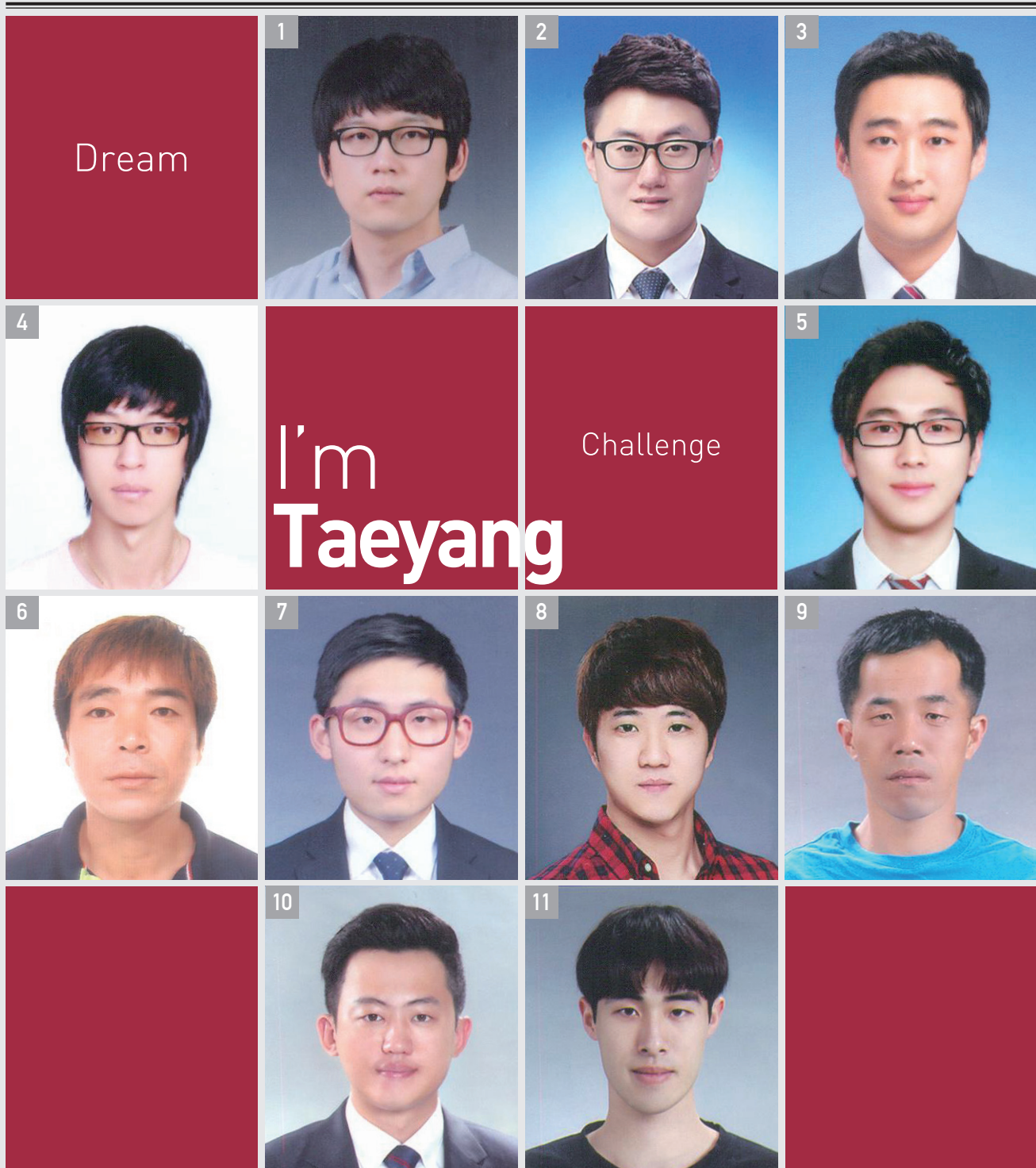
김원기 대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급을 연체 한 적이 없다. 어쩌면 당연한 이 일이 사실 기업 대표들이 지키기에 만만한 것이 아니다. 사회와 공생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저는 미국의 록펠러 재단을 참 훌륭하게 봅니다. 사회에 인색한 기업은 그 가치를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작게라도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등 도움이 절실한 이웃부터 도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 조건을 故한은영 회장님으로부터 배운 ‘제품에 혼을 담지 않고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김원기 대표의 기업가 정신은 최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업관과 맞닿아 있다. CEO와 직원들이 제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로 기업은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이다. 땀속까지 장인 정신으로 가득찬 김원기 대표의 '태양 맨' 정신이라면 그의 목표도 머잖아 이루어 질 것으로 믿어도 괜찮을 듯 싶다.

“제가 발로 밟아 퍼던 불량제품을 기계화시킨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당시 천호동에서 통근버스로 안산까지 출퇴근 했는데, 오가는 버스 안에서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니 제가 먼저 한 것이고, 태양금속 시절의 그런 생각은 지금도 저를 밀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WHO ARE YOU?



INTRODUCE

성명 입사일 부서 취미 / 특기 장점 각오(또는 하고 싶은 말)	1 권오상 2014년 11월 19일 소재연구팀 당구 / 농구 친화력이 강하여 쉽게 적응합니다. 배우려는 의지로 열심히 하여 태양금속공업에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2 공동수 2014년 11월 19일 설계개발팀 피아노, 헬스 / 일본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3 이준섭 2014년 12월 1일 설계개발팀 음악감상 성실함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배성욱 2014년 12월 1일 생산팀 드라이브 적극적이며 긍정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TAEYANG METAL INDUSTRIAL		5 방진혁 2014년 12월 9일 생산5팀 운동 / 도전 긍정적인 성격 모든일에 최선을, 불가능은 없다!
6 배영락 2014년 12월 15일 생산5팀 축구 적극적이다 책임감있게 생활하겠습니다.	7 김건우 2015년 1월 9일 소재연구팀 농구 / 음악감상 성실하게 꾸준하게 모든 일에 임하면서 묵묵히 해결하려는 성격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층한층 성장하여, 큰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장형태 2015년 1월 9일 품질관리팀 노래듣기 / 볼링 활발한 성격 무든 열심히 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9 이종욱 2015년 1월 19일 물류팀 영화감상 강한 책임감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0 김태준 2015년 1월 21일 해외영업팀 영화감상 / 탁구 끈기있는 성격과 성실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1 박연상 2015년 1월 21일 생산5팀 낚시 / 조립 꼼꼼함 어제를 생각하는 나보다 내일을 생각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청운의 꿈이여~ 계속되라!!

새로이 태양식구가 되신 신입사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회사와 국가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양어깨를 응원합니다. 승진과 전보로 더욱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신 사우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입사

11월 17일 김혁일 사원 생산2팀

11월 19일 권오상 사원 소재연구팀

11월 25일 성재혁 사원 생산3팀

12월 1일 공동수 사원 설계개발팀
이준섭 사원 설계개발팀
배성욱 사원 생산1팀

12월 8일 윤영빈 사원 생산5팀

12월 9일 방진혁 사원 생산5팀

12월 15일 정종윤 상무
최진휴 부장
천금배 부장
조정민 차장
원희연 과장
배영락 반장 생산5팀

1월 5일 김연수 상무 품질본부장

1월 7일 표기석 사원 생산1팀

1월 9일 김건우 사원 소재연구팀
장형태 사원 품질관리팀

1월 19일 이종옥 사원 물류팀

1월 21일 김태준 사원 해외영업팀
박연상 사원 생산5팀

1월 28일 김기철 사원 생산1팀

인사발령

12월 22일 전무 현성운 / 품질본부장 → 해외영업본부장
상무 정종윤 / 전략기획본부장
부장 최진휴 / Risk관리팀장
부장 천금배 / 생산기술팀
차장 이종렬 / 해외개발팀장 겸무
차장 조정민 / 설계개발팀
과장 원희연 / 생산기술팀

12월 24일 과장 조원준 / 해외개발팀 개발담당 겸무
과장 최상희 / 재경팀 → Risk관리팀
과장대리 홍승범 / 전략기획팀 → Risk관리팀
과장대리 원동익 / 설계개발팀 → 해외개발팀 원가담당

1월 1일 조장 박성일 / 생산3팀 → 생산2팀

1월 5일 부장 천금배 / 생산기술팀 → 자동화팀장
과장 원희연 / 생산기술팀 → 자동화팀
사원 김태균 / 생산관리팀 → 자동화팀

1월 28일 전무 정동찬 / 주요부품 초/중/중물관리 전산화 PM겸무
전무 현성운 / 협력사 국내모사 해외공장 지원 강화 PM겸무
상무 박천옥 / 1차사 ↔ 2/3차間 개발/품질정보 전단계 구축 PM겸무
상무 정연옥 / 동일업종 외주화 관리 강화 PM겸무
상무 김연수 / 1차 협력사 內 2,3차사 품질지도 전담조직 활성화 PM겸무
해외공장 KD부품 품질관리 강화 PM겸무
기초품질 확보 활동(4M 미신고, 비규격 재질 등) PM겸무
도면&부품 일치성 확보 활동(협력사 금형품질 관리 강화) PM겸무
해외 진출 협력사 활동점검 강화 PM겸무
소재업종 부품 품질 점검활동(주철/AL주조, 열처리, 단조) PM겸무
상용 해외공장 부품 품질 강화 PM겸무
부장 최현종 / 협력사 합동점검(3i-CDQ) PM겸무
협력사 최초 적용 공법/재질/설비/ 항목 점검 강화 PM겸무
협력사 R&D 투자 및 역량 강화 PM겸무
특수강 부품품질 확보 PM겸무

2월 2일 과장 이철호 / 인도법인 주재원 → 해외영업팀
주임 김기담 / 인도법인 주재원 → 품질보증팀